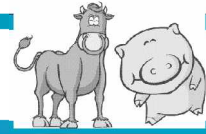


소· 돼지 가격전망



소

3월 소 값, 소비 살아나며 회복세 전망



설 연휴까지 강세를 보였던 소 값은 이후 소비비수기로 접어들며 2월말 현재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산지 출하물량 증가

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 소 값이 강세를 보인 이유는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올 설날 한우선물세트의 판매 태준이 전년대비 최대 20%정도 신장했고, 아울러 갈비세트 등 고가의 제품판매 비중도 높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설 이후에는 소 값이 소비비수기 영향으로 약세를 나타냈고, 이 같은 현상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조기에 이뤄진 경우, 즉 4월 총선 전 및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3월 초기 시점에 전년개방설이 탄력을 받을 경우 산지 소 값은 일시적으로 급등세를 일존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소 및 2·3등급 등의 소 값은 소비기반이 탄탄해 암소 및 거세우 고나 가격하락의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한우우 등 국내산 쇠고기는 수입쇠고기와의 소비기반증이 달라 소비급감 등의 현상은 크게 우려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농가들은 불안심리에 따른 조기준하를 자제하고 고급육 사양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3월초까지 이어 지는 소값의 약세 현상은 학교방학 등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소비가 증가하며 다소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돼지

돼지값, 3월 기점 탄력 받아 상승 전망

전통적인 소비 비수기 영향으로 2월 돼지값(돈지육 경락가격)은 지난달에 이어 kg당 2천900원대의 약세 기조를 이어갔다. 특히 2월에는 설 영향으로 갈비, 전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위가 소비부진으로 적체현상을 빚었고 육가공업체들도 작업물량을 조절해, 최근까지도 돼지값은 쪼렷한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2월 이후 돼지값은 전통적으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전년개방 등의 돼지고기 소비에 영향을 주는 약세가 나타나지 않는 한 돼지값은 소비증가, 도축물량 감소 등이 함께 맞물리며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올 3월 돼지값은 산지 사육두수 감소, 모돈수 감소 현상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소폭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대형마트들의 삼겹살, 복살 등의 행사가 3월부터 잇따라 열리며 소비가 증가, 대형육가공업체들이 이들 부위의 재고를 줄이고 작업량을 늘릴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상승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양돈산업은 그 어느때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돼지고기도 한시바빠 한우의 성공사례와 같이 품질고급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 는 한편 수입돼지고기의 국산 눈감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일간 미트뉴스 제공>